



서구,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및 실천결의대회 서구가 24일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실천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친절교육은 한국감성소통연구소 대표인 박지아 강사를 초청해 친절한 민원 응대를 위한 유형별 응대법과 공감소통화법 등을 교육했다. /이달호 기자

### 스웨덴 교육전문가 초청 5·18 교육포럼

27일 개최...학교 내 민주주의 교육 방법·정책 소개

광주시교육청이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기념해 '5·18 스웨덴 시민교육을 만나다. 더 나은 민주주의, 더 좋은 시민교육을 위해'를 주제로 오는 2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5·18교육포럼을 개최한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5·18교육포럼은 대표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의 교육 전문가와 교장을 초청해 전면 대면으로 진행한다.

황선준 전 스웨덴 국가교육청 정책평가과장을 비롯한 스웨덴 교육국장 교육발전 과장·기초학교장이 참여, 학교 내 민주주의 교육 방법과 정책을 소개한다.

이번 포럼은 시교육청과 광주국제교류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참가 희망자는 동시 통역 등 원활한 행사



진행에 앞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은 이날까지 광주교육연수원 누리집에, 일반 시민은 오는 25일까지 광주국제교류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도기 기자

### 북구 '재능기부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주민·동강대 학생 200여 명 참여...체험부스 등 운영

북구는 풀뿌리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4일 동강대 잔디운동장에서 (사)광주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동강대학교 자원봉사캠프와 함께 '제1회 동강대학교 재능기부 힐링 미니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연대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주제로 북구 지역 동 자원봉사캠프 관계자와 학생,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했다.

박람회에서는 기념식을 비롯해 동강대 학생들의 건강상담, 디지털·커피 시음, 네일아트, CPR(심폐소생술) 등의 재능기부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북구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교육과 업사이클링 체험도 진행됐다. /권형안 기자

북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난 해 30개로 확대된 북구 지역 자원봉사캠프의 첫 번째 활동으로 코로나 19 일상 회복에 맞춰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북구자원봉사센터 홍점순 소장은 "대학의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과 연계해 자원봉사 박람회를 열게 됐으며 행사를 계기로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풀뿌리 자원봉사 활성화에 28개 동과 동강대, 서영대 등 총 30개소의 자원봉사캠프를 통해 지역별 캠프별 특색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있다. /권형안 기자

# '일자리 연계' 고교 직무교육 생긴다

##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 "네이버클라우드 등 2100여 개 기업 참여"

정부가 주관하는 직업계고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제도가 새로 생겼다. 교육을 받고 대학 진학 없이도 인공 지능 등 유망 직종 분야에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직업계고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직업계고 졸업 예정자나 미취업 고졸자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47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위탁을 받아 기업 부설 교육원 등 위탁 교육기관을

모집했으며, 62개 기관이 경쟁해 절반 정도인 35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기관 인증평가 또는 유사한 사업 실적을 활용하고,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엄격히 평가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또 네이버클라우드, 메이필드호텔,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2100여개의 각 분야 선도기업과 강소기업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 하에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기업, 전문교육기관, 대학, 유관협회 등이 연합체를 꾸리거나 단독 형태로 사업에 참여해 고

졸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에 나서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참여 기업들은 관계 당국의 사후 관리를 받게 되며 일자리 질이나 채용 연계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체가 이뤄질 수도 있다.

사업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 1대 1로 분담, 총 55억6600만원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교육생 1050명을 선발해 3개월 간의 직무교육, 취업 상담을 실시한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50만원의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으로 채용연계형 현장실습 취업률(63%)을 웃도는 70% 가량의 교육생이 채용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교육청과 기업이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채용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제도가 있었으나, 중앙 정

부 주도의 고졸 채용연계형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채용 연계형 사업들이 여건의 한계로 지역에 따른 수업 질과 교육과정의 종류에 차이가 있어 정부 주도 사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3개의 비대면 원격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시지역 학생들도 타 지역에서 대면으로 이뤄지는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지속 사제공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택하지 않고도 유망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경로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뉴스시스

## 금호고속 '목포·여수·순천-인천공항' 6월부터 운행

### 광주-인천공항 고속버스 운행횟수도 하루 8회로 확대

해외여행과 출장 등을 계획 중인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24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목포·여수·순천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고속버스 운행이 재개된다. 여기에 금호고속과 광신고속이 운행하는 '광주-인천공항 간 고속버스' 운행 횟수도 기존 4회에서 8회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운행 횟수 확대는 지난 6월 운행을 재개한 '광주-인천공항 간 고속버스' 이용객이 증가 추세에 있

고, 하반기에는 해외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결정했다.

'목포-인천공항 간 고속버스'는 하루 1회 운행하며, 목포 출발은 오전 2시, 인천공항(T2) 출발은 오전 10시이다.

'여수·순천-인천공항 간 버스'도 하루 1회 운행한다. 여수를 출발 순천을 경유해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며, 여수와 순천 출발은 각 오전 0시 10분, 오전 1시이다. 인천공항(T2)에서 오전 9시에 출발 순천을 경유해

여수까지 운행한다.

'광주-인천공항 간 고속버스'는 내달 1일부터 하루 8회 운행할 예정이다. 광주 출발시간은 오전 1·2·3시, 3시55분, 8·10시, 낮 12시, 오후 2시이고, 인천공항 출발은 T2 기준 오전 7시 30분·8시 30분·9시 30분·10시 30분, 오후 3·5시, 7시 30분·9시 30분이다.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고속버스는 '티머니 Go' 어플을 통해 예매가 가능하고, 광주, 목포, 여수, 순천발 인천공항행 고속버스는 코버스 누리집 또는 '고속버스티머니' 어플을 통해서도 예매가 가능하다. /권형안 기자

## 전남교육청 '읽기 따라잡기' 연수...기초 문해력 지원

### "기초학력 끌어올리기 위한 출발점"...오는 12월까지 운영

전남도교육청이 2022년 기초문해력 지원을 위한 '읽기 따라잡기 연수'를 진행한다.

24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읽기 부진 학생 지도를 통한 기초학습 능력 신장과 지도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마련된 이번 연수는 오는 12월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과 나주공공도서관에서 2개 권역 별로 기본과정과 전문가과정으로 운영된

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그림책을 활용한 읽기와 실제제도에 기초한 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의 초기 문해력 향상 방안을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한다.

또한 초기 문해력 개별화 지도를 통한 실험 연구와 지도 사례 등을 공유, 효과적인 문해력 지도방법을 익힌다.

전남교육청은 초1~초6 학년을 대

상으로 읽기학습 검사를 해 읽기곤란학생(난독증)을 선별하고 광주교육대학교 등과 협업, 초기 문해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읽기유망성 연수도 개설, 읽기 기본학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운영선 유초등교육과장은 "읽기 부진으로 인한 학습력 저하 문제 해결이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연수와 연찬의 기회를 제공해 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해외 뮤지션들 문의 쇄도

광주는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글로벌 오디션에 해외 뮤지션들의 참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음악을 사랑하는 19세 이상 전 세계 버스커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기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응이 폭발적이다.

버스커즈 월드컵 누리집 방문자 수는 일 평균 200~300명으로 지금까지 누적 방문자 수는 5000여 명에 달하며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계 30개국에서 참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국내 유명 언더그라운드 밴드도 참가 신청을 마치고 도전에 나섰다.

또한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오디션이 스타 등용문이 될 수 있도록 본선 진출 '광주 버스커즈 뮤지션' 16개팀과 함께할 연예 기획사를 모색 중이며 이와 연계해 행사를 이끌어갈 대행사도 모집하고 있다.

대회 참가는 19세 이상 음악에 관심 있는 국내·외 버스커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오는 6월 7일까지이며 공연 활동이 담긴 동영상과 참가 신청서와 함께 누리집(www.buskersworldcup.com)에 제출하면 된다. /박종배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